IBKS Spot Comment

자동차/2차전지

이현욱

02) 6915-5659
hwle1125@ibks.com

[자동차/2차전지]
북미 ESS길 열리나?

ESS 시장 YoY +62.7%로 고 성장 중

글로벌 ESS 시장은 2023년 185GWh에서 2024년 301GWh로 YoY +62.7% 증가하며 고성장세를 이어나가는 시장으로 2차전지 시장에서 EV 다음으로 중요도가 높은 시장이다. 다만, ESS 시장 내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2024년 기준 한국 배터리 셀 3사의 ESS 시장 점유율 6%(LGES 2.7%, SDI 3.3%)를 제외한 80% 이상 점유율을 CATL, BYD 등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ESS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장소에서 사용됨으로 에너지 밀도보다 가격, 안정성, 수명에서 장점이 있는 LFP가 삼원계보다 더 적합하다. 참고로 KWh당 가격은 LFP는 60~70달러, 삼원계는 100달러로 추정되는 만큼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ESS 시장 내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지속해서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쏘아 올린 작은 공, ESS 북미 시장

글로벌 시장 환경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들어서며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견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중국산 배터리 셀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EV용 배터리는 123.9%(73.9%+50%), ESS용 배터리는 132.4%(82.4%+50%) 부과로 한국 배터리 업체 및 소재사들에게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ESS Container System의 경우 재료비+가공비는 Kwh당 80달러, 운송비는 KWh당 5달러로 평균 85달러로 구성되고 있다. 여기에 관세가 추가된 가격을 비교시 Kwh당 ESS 가격은 관세 10% 부과시 93달러(관세 8달러), 82.4% 부과시 151달러(관세 66달러)까지 증가하게 되어 가격 부담으로 미국 현지 내 생산이 중요하게 되었다. 참고로 미국 현지 생산 시 ESS는 Kwh당 176달러이나, AMPC 보조금 45달러 수취 가능하여 Kwh당 131달러로 중국 내 수입 가격보다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ESS 시장 준비 상황

2025년 전망 기준 전체 매출액 중에서 ESS가 차지하는 비중은 LGES은 10.1%, SDI는 17.6%이다. LGES의 경우 4월부터 미시간 공장에서 ESS SOP가 시작할 예정이며, 미국에서 ESS용 LFP라인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SDI도 내년부터 한국에서 LFP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27년부터는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 북미에서 ESS 및 EV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럽 시장은 미국 시장과 달리 중국 ESS 배터리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어 현지 생산 관련 법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으로는 관세 영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북미 지역에 집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표 1. 전방산업별 배터리 인도량 비교 (단위: GWh)

구분	2023년				2024년				
	EV	ESS	TTL	M/S	EV	ESS	TTL	YoY	M/S
CATL	308	74	382	36%	381	110	491	29%	38%
BYD	135	22	157	15%	165	27	192	22%	15%
LGES	**129**	**8**	**137**	**13%**	**120**	**8**	**128**	**-7%**	**10%**
EVE	21	21	42	4%	28	40	68	62%	5%
CALB	34	8	42	4%	44	20	64	52%	5%
Gotion	25	6	31	3%	32	18	50	61%	4%
SDI	**49**	**9**	**58**	**6%**	**38**	**10**	**48**	**-17%**	**4%**
Panasonic	41	-	41	4%	40	2	42	2%	3%
Skon	**57**	**-**	**57**	**5%**	**31**	**-**	**31**	**-46%**	**2%**
Sunwoda	14	1	15	1%	21	1	22	47%	2%
Others	52	36	88	8%	98	65	163	85%	13%
Total	865	185	1,050	100%	998	301	1299	24%	100%
국내 배터리 M/S	**26%**	**9%**	**-**	**24%**	**19%**	**6%**	**-**	**-14%**	**16%**
Top 10 M/S	94%	81%	-	92%	90%	78%	-	18%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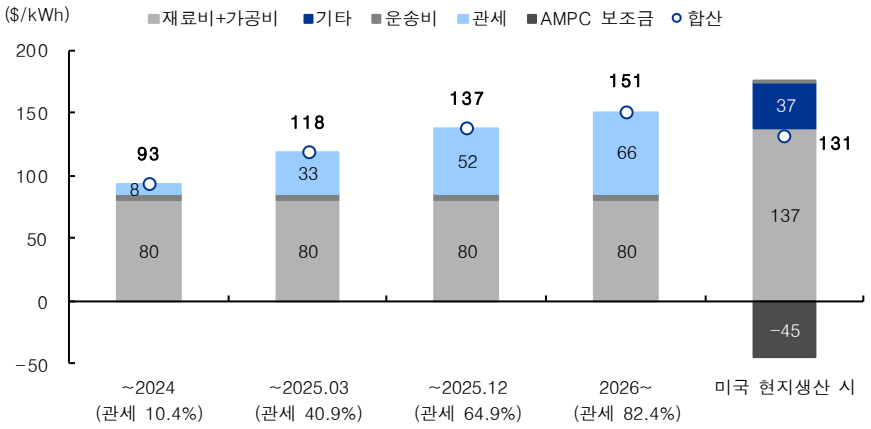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IBK투자증권

표 2. 트럼프 2기 고관세 정책: 한국 배터리 업체 및 소재사들의 영향, 위기와 기회 요인

구분	셀메이커	소재사
관세영향	- 중국산 배터리 셀 고율 관세 (EV 73.9%, ESS 82.4%) + 50% **- 북미 생산 시 관세 회피 + IRA(AMPC) 보조금 혜택**	- 중국산 소재 관세 평균 25~84% - 미국 내 생산 시 관세회피 + IRA 세액공제 적용
위기요인	**- 북미 생산 CAPEX 및 운영 부담** **- 원재료 중국 의존도 높음** **- IRA 보조금 축소 가능성** **- Cost 상승으로 인한 시장 위축(EV/ESS)**	- 원재료 중국 의존 심각(LiPF6, 흑연, 리튬 등) - 미국 생산 및 CAPEX 부담 - IRA 요건 강화로 원재료 내재화 없이는 혜택 축소
기회요인	**- ESS 시장 중국 배터리 대체** **- 전기차용 중국산 LFP 사용 대체** - 장기 계약 확보 및 공급망 내재화	- 전해액/분리막: 미국 내 생산 Capa 부족 〉 시장성 높음 - 양극재/음극재: 북미 생산 시 IRA 적용 + 가격 경쟁력 확보 - 미국 소재사 및 OEM과 JV로 value chain 진입
시사점	- 2025~2026년 북미 생산과 소재 내재화가 성공의 분수령 -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CAPEX 완료 + 생산 본격화 - IRA 유지 여부와 중국 원재료 탈피가 리스크 관리 포인트	**〉 미국정책의 불확실성 / 북미 시장(EV/ESS) 위축 Risk**

자료: SNE Research, IBK투자증권

그림 1. ESS Container System 경쟁력 비교



자료: SNE Research, IBK투자증권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